

圖書館業務의 機械化를 위한 實態調査

—機械化分科委員會 報告書—

編輯者 註: 本協會 專門委員會 機械化分科委員會는 圖書館業務의 機械化를 위한 實態를 調査하여 現況을 把握함으로써 圖書館業務의 機械化에 대한 計劃 樹立의 參考資料로 使用하는 한편 이를 道廳月보를 통하여 各圖書館에 報告하여 圖書館業務의 機械化를 促進시키고자 그 調査資料를 整理하여 機械化分科委員會의 報告書로서 掲載하는 것이다.

1. 경 파

본협회의 기계화 분과위원회에서는 73년 8월 11일에 제1차 회의를 협회사무실에서 가진 바 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기계화분위는 “장차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기계화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계화분위의 활동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움직일 것인가?”하는 문제와 “도서관에서 본 협회의 기계화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무엇을 희망하는가?”하는 것 등을 소수의 사람이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으로 나누어 전국의 도서관에 일정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그들의 의견 내지는 계획을 들여보고, 기계화분위의 사업방향을 설정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하여 동년 9월 18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도서관의 기계화문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리하여 대학도서관 52개관, 공공도서관 23개관, 특수도서관 10개관 등 총 85개 도서관으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회답을 접수하고, 제3차 회의를 동년 11월 23일에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접수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이 상당수 누락되었으므로, 누락된 도서관으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회답을 추가해서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누락된 도서관들에 대하여 설문지를 재 배포하여 그 회답을 받았다. 즉 71개 대학도서관, 32개 공공도서관, 19개 특수도서관 등 모두 122개 도서관으로부터 설문지에 관한 회신을 접수하여 동년 12월 27일 제4차 기계화분위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접수된 설문을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업무의 기계화문제에 있어

서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협회 기계화 분과위원회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가능한 업무부터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업무의 기계화가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도화하여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우선 본 협회의 기계화 분위에서 작성한 설문내용과 접수된 그 회답을 검토 분석하여 여기에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한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과, 격려를 하여 주신 도서관 관계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여 마지 않는다.

2. 설문내용 및 그 해답분석

1. 귀도서관에서는 기계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총 122개 도서관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30개이며, 특수도서관은 11개이었고, 공공도서관은 7개 등 도합 48개 도서관이었으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41개이며, 특수도서관은 8개이었고, 공공도서관은 25개 등 도합 74개 도서관이었다.

이것을 통하여 아직까지 많은 도서관에서는 기계화문제에 대하여 계획,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관심도 대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서 주로 가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는 비교적 그 관심이 적다고 하겠다.

2. 기계화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이미 기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 도서관은 10개 도서관이었는데, 대학도서관이 4개관이며, 특수도서관도 역시 4개관이었고, 공공도

서관이 2개관이였다.

나) 그렇다고하면 그 적용 분야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대체로 복사분야임을 밝히고 있다.

다) 기계화의 타당성을 조사중이라고 하는 도서관은 모두 20개 도서관이었는데, 대학도서관이 11개관, 공공도서관이 8개관, 특수도서관이 1개관이였다.

라) 기계화 작업을 위한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33개관이었는데, 대학도서관이 25개관, 특수도서관이 6개관, 공공도서관이 2개 도서관이였다.

마)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서관이 48개 도서관인데, 그 가운데 대학도서관이 27개관, 특수도서관이 7개관, 공공도서관이 14개관이였다.

여기에서 도서관업무의 기계화라고 하면, 기계화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복사기, 전기팬 등을 기계화의 범주에 넣어 생각하고, 다른 일부 도서관은 전자계산기에 국한하여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기계화 작업을 주로 복사분야에 대하여 이미 실시하였다고 하는 경우는 전자의 경우일 것이요, 아직 기계화에 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3. 기계화에 대한(계획이 있다면)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①예산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② 행정당국, 내지는 이용자들의 인식부족을 들고 있으며,

③ 전자계산기의 조직, PROGRAM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서의 부족을 말하고 있고,

④ 기계화에 앞선 준비단계의 미비, 예컨대 시설의 미비, 자료의 빈약성 등을 들고 있다.

4. 기계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① 기계화보다도 긴급히 하여야 할 업무량이 폭주하고,

② 소규모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행업무의 애로점이 적으며,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5. 귀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51개 도서관이 복사분야에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리분야에서 8개 도서관

이, 수서분야에서 5개도서관, 그 밖에 출판, 음악감상 등의 분야에서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기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사분야에서는 복사기, 정리분야에서는 mimeograph, 전기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7. 만약 귀도서관업무를 기계화한다면 어느 분야부터 착수할 계획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에서는 대체로 ①정리업무, ②참고업무, ③열람업무, ④검색업무, ⑤수서업무 등의 순으로 기계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수도서관에서는 ①정리업무, ②검색업무, ③열람업무, ④수서업무, ⑤참고업무 등의 순으로 기계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에서는 ①수서업무, ②정리업무, ③열람업무, ④검색업무, ⑤참고업무 등의 순으로 기계화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8. E.D.P.S. 교육을 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에서는 8명이, 특수도서관에서는 7명이, 공공도서관에서는 1명이 E.D.P.S.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기계화작업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문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31개 도서관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91개 도서관에서는 현 단계로는 기계화 작업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본 협회의 기계화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으면 하고 희망하십니까?

① 도서관의 기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② 각 기관장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하여 도서관업무의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시켜 주기 바라며,

③ 외국의 기계화 된 도서관을 소개하고,

④ 기계화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소개 및 알선 등 선도적 역할을 희망하고,

⑤ 기계화의 적용업무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며,

⑥ 기계화의 요망도서관, 내지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하여 시행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⑦ 도서관 기계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협력체제를 구성하고,

⑧ 기계화를 위한 도서관 상호간의 공동보조를 취하여 년차적인 공동 기계화 계획의 수립을 희망하고,

⑨ 도서관 업무의 기계화에 선행한 업무의 합리화 내지는 표준화를 기대하며, 검색용어의 확정을

기대하고,

- ⑩ PROGRAM 에 관한 도서의 출판을 희망하고,
 - ⑪ 전자계산기에 대한 견학, 또는 알선 등을 수행하고,
 - ⑫ 귀협회의 기계화에 관한 Master plan 을 성안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11. 도서관 기계화에 대한 귀도서관으로서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 ① 예산상의 문제 내지는 예산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 ② 도서관 자체도 인식이 부족한 데, 도서관 업무의 기계화 문제는 더욱 인식이 부족하다.
- ③ 기계화 작업을 수행할 전문요원의 교육문제가 시급하며,
- ④ 도서관학과 이수과목(사서교육과정)에 PROGRAM 에 관한 교과목을 추가 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 ⑤ 도서관 업무의 기계화에 선행하여 기초가 되는 작업, 말하자면 업무의 합리화, 능률화가 이루어지도록 분석 연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

본협회의 기계화분과위원회에서는 상술한 설문지의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기본방향(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도서관 업무의 기계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코자 한다. 외국의 기계화된 도서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관하여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계화의 적용업무를 선정하여 현행 업무를 분석하고, 단위작업의 표준시간 유사한 서식의 중복된 지체를 피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서식 및 장표의 합리화 등, 기계화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SYSTEM 을 설계하고, 검토하여 수정하고, 시험(Symulation) 하며, 한걸음 나아가서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계화에 선행한 업무의 합리화, 내지는 표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부분적으로 기계화를 수행하고, 다음은 업무의 계열별 기계화를 시도하며, 나아가서는 계열간의 통합을 위한 TOTAL SYSTEM 의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도서관 상호간 기계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며, 년차적인 공동 기계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 도서관 정원 증양에는 생긴 모습이 회귀한 향나무 한 그루가 있다.

전직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약 40여년전에 당시의 직원이었던 高某氏라는 분이 기증한 것으로 처음 이식을 해 왔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자태를 지니고 있다 한다.

7년을 한결같이 드나 들 때마다 나에게 많은 상념을 그때 그때 달리주던 한 그루의 향나무 얼핏 보기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이 마냥 한 해를 지내기가 힘겨운 듯한 느낌을 주지만 7년을 지켜보아도 더나 덜 자라지도 않고 향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시들어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그 향나무에겐 더나 덜의 표면상의 변화는 없어도 향시 곳곳한 자아의 식 속에 황우 같은 지구력으로 그의 생을 살아가는 정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속되게 퇴색되어 가는 명동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향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향나무를 둘러싼 주위의 온갖 사물이 슬한 변화를 겪고 그 모습을 새로이 나타 내지만 말없는 이 향나무의 자태는 오랜 풍상 속에서도 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는 듯하고 또한 어느 면에서는 도서관의 생태와 유사한 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무릇 이 향나무를 기증한 분의 뜻이야 어찌 있든간에 그 분이 비록 일제하의 후작의 손이라 하더라도 이

민족 국가는 결코 끊이지 않고 끈기있게 면면히 이어가는 민족의 얼을 한 그루의 향나무 속에서나마 비쳐 보고자 한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여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나무가 좀 더 무성하고 싱싱 하였더라면 이처럼 내 마음에 연연 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오랜 세월동안 내 마음속의 친근한 벗이 역사의 변천에 따라 그 위치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못 걱정스러운 것이다.

될수만 있다면 항상 이 향나무가 있는 곳에 하루에 몇번이라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변동이 없었으면 한다.

만약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 향나무를 대할 수 없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국립도서관 이전에 관한 말이 나온 후 착잡한 감정 속에서도 이 향나무의 앞날에 대한 생각 또한 이를테 없다.

속리산을 다녀온 분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正二品の 벼슬을 가진 노승을 보았으리라. 영풍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곳 도서관을 통해 사회에 배출된 많은 인사들 또한 지금도 앞으로 많은 사회 일꾼을 배출시킬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이 향나무에게 벼슬 한자리쯤 내려잡이 어떨는지?

却說하고 주위환경에는 아랑곳 없이 도서관과 함께 자신을 지켜온 이 향나무가 앞으로도 영원히 도서관과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續)

